독일어 제 2분사(Partizip II)의 부가어적인 형용사화에 따른 문법상의 제약

이해정(독일문화원)

1. 서론

이 논문에서는, 기저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를 유도할 때 생기는 통사의미론적인 문제점들을 변형생성문법의 X'-통사론과 시간의미론(Zeitsemantik)을 근거로 기술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가어적인 형용사의 연구에서 das verbrannte Papier, die aufgeblühte Rose에서 볼 수 있는 verbrennen, aufblühen 등과 같은, 사건을 나타내는 자동사로부터 유도된 형용사와 der in Heidelberg angekommene Zug, der aus dem Büro gelaufene Mann등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문법적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왜 der geschlafene Junge, das gelachte Mädchen 등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유도될 수 없는지 그리고 *(??)die in den Saal getanzte Frau,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e Mann이 비문법적이거나 용인가능(akzeptabel)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의미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비문법성에 대한 이유는 동사분류에 의한 통사론적인 제약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축 상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사태변화의 기술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2. 부가어적인 형용사구의 통사적 유도

기저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가 유도되는 과정은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문의 구조를 통해 예시되어 왔다.

(1) a. das verbrannte Papier
b. das Papier, das verbrannt ist,
(2) a. die aufgeblühte Rose
b. die Rose, die aufgeblüht ist,
(3) a. die verklungene Glocke
b. die Glocke, die verklungen ist,

과거분사 verbrannt, erblüht, verklungen의 부정형인 verbrennen, erblühen, verklingen은 시작이나 종결을 나타내는 동작태 Aktionsart를 갖고 일정한 시간구간내에서 초기상태 Anfangszustand와 목표상태 Zielzustand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비문법적인 부가어적인 형용사구의 기저동사들을 보자.

(4) a. der *geschwommene Junge
b. der Junge, der geschwommen hat,
(5) a. das *gelachte Mädchen
b. das Mädchen, das gelacht hat,
(6) a. der vor dem Haus *gestandene Baum
b. der Baum, der vor dem Haus gestanden hat,

과거분사 geschwommen, gelacht, gestanden으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모두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로부터만이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는다.

다음으로 앞서 (2a)에서 본 부가어적인 형용사 die aufgeblühte Rose는 다음과 같은 관계문으로부터 통사적으로 유도되었다고 가정한다.

(2) a. die aufgeblühte Rose
b. die Rose, die aufgeblüht ist

또한 이 관계문은 변형생성문법의 X′-통사론의 도식에 따라 다음 (2b′)과 같은 기저구조를 갖는 것으로 기술된다.[1)]

이 구조가 갖는 X′-도식의 이점은, 형용사적인 부가어의 유도에 문제가 되는 시제나 상을 문법적인 범주 I의 자질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sein/haben과 같은, 어휘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정동사를 사전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범주에 나타날 수 있는 자질들을 정동사의 일치자질 AGR(=Agreement)을 제외하고 시제와 상의 자질들로 국한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 a. 시제 (TEMP(US)) 자질

β TEMP; β = 1, 2

1 TEMP = PRÄSENS

2 TEMP = PRÄTERITUM

b. 상 (ASP(EKT)) 자질

ν ASP

ν = 1, 2, 3

1 ASP = PROG(RESSIV)

2 ASP = PERF(EK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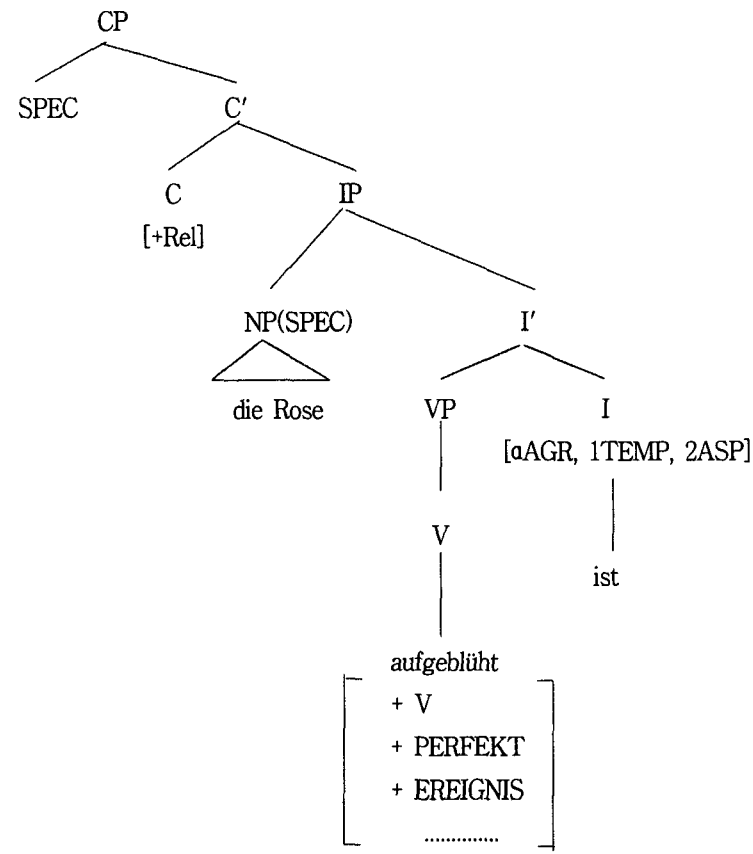
3 ASP = PERF(EK)TIV

주어와 정동사간의 일치관계를 기술하는 AGR자질에는 인칭(Person), 성(Genus), 수(Numerus), 격(Kasus)등이 속한다.

---

1) 이 논문에서 X′-통사론은 변형생성문법의 발전과정에서 자연언어기술에 가장 안정적인 기초를 제공한 장벽이론("Barrier-Model")에 근거한 것이고 시간의미론은 W. Klein(1994, 1998)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장벽이론을 택한 이유는 1990년도 중반에 등장한 최소주의 이론(Minimalitiy Theory)이 아직까지 자연언어의 수많은 현상들을 기술하는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도로 추상적인 부가어적 형용사구의 기술에 문법이론으로서는 지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2) b'. /



이 구조에서 I-범주의 자질 [αAGR, 1TEMP, 2ASP]은 이 문장이 현재시제임과 동시에 완료상을 나타낸다. 독일어에서 완료상은 정동사로서 sein 혹은 haben을 취하고, sein을 취할때는 자신이 지배하는 기저동사의 동작태가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거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즉 사건동사일 경우에 한정된다. haben을 취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동사의 동작태가 사태의 변화

가 없는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이다. 이와같이 완료상에 의해 정 동사가 결정되면 I-범주의 자질에 따라 자신이 지배하는 인접한 VP의 V의 의미자질인 동작태 자질이 각각 [-EREIGNIS], [+EREIGNIS]으로 결정된다. [-EREIGNIS]는 상태동사나 동작동사의 동작태를, [+EREIGNIS]는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의 동작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해당동사들은 과거분사형태로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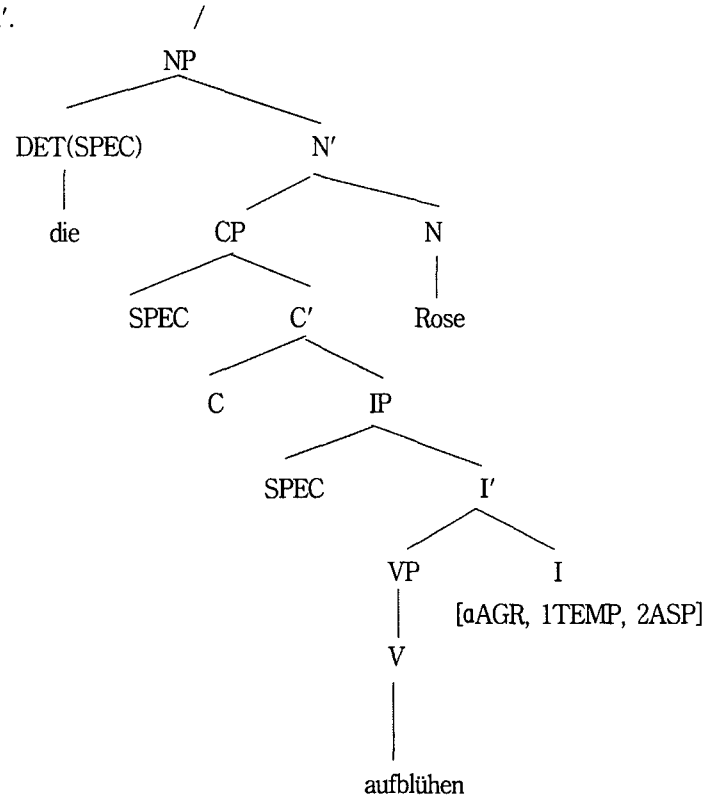
이제 관계문의 기저구조로부터 동일한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할 때 어떠한 통사적인 제약이 따르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여 보자. 다시한번 (2)를 보자.

(2) a. die aufgeblühte Rose
b. die Rose, die aufgeblüht ist,

(2b)의 관계문은 자신를 지배(Chomsky(1986)의 용어로는 θ-지배)하는 선행명사의 우측에 있지만 동일한 의미의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자신을 지배하는 명사의 좌측에 있기 때문에 (2a)의 기저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2)]

2) Chomsky(1986)에서 θ-지배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α θ-governs β iff α is a zero-level category that θ-marks β, and α, β are sisters, or β is the head of a sister of α." 이 정의는 α가 β를 θ-지배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서 α는 β를 θ-지배할 뿐만 아니라 β의 핵심어까지도 θ-지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신수송(1988: 200ff)에서 재인용).

(2) a′.



명사가 지배하는 부가어절이 명사의 좌측에 오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포함된 die aufgeblühte Rose의 기저구조는 근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관계문 die Rose, die aufgeblüht ist의 기저구조와 동일한 구조이다. 즉 부가어절인 CP가 자신을 지배하는 N의 좌측 혹은 우측에 나타나는 경우에 따라 각각 부가어적인 형용사(구)가 유도되거나 관계문이 유도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어절이 명사의 좌측에 나타날 경우 독일어에서는 어떠한 정형절(finiter Satz)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음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8) a. die *[die aufgeblüht ist] Rose
b. die Rose, die aufgeblüht ist,
(9) a. das *[das verbrannt ist] Papier
b. das Papier, das verbrannt ist,
(10) a. der *[der aus dem Haus gelaufen ist] Mann
b. der Mann, der aus dem Haus gelaufen 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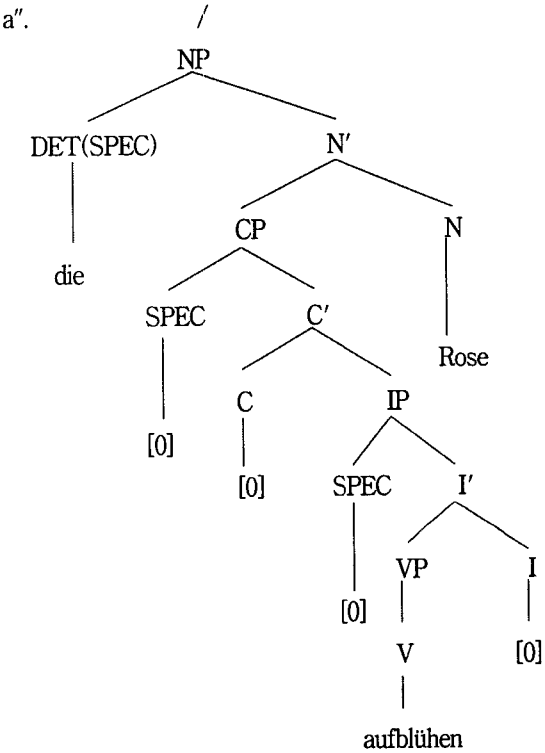
이러한 문법적인 제약은 보편문법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독일어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매개변수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신수송 1988: 제 III장 비교).

(11) 명사앞의 정형절 금지 조건
*[NP ... [CP ... [IP ... [I α AGR, β TEMP, ∨ ASP]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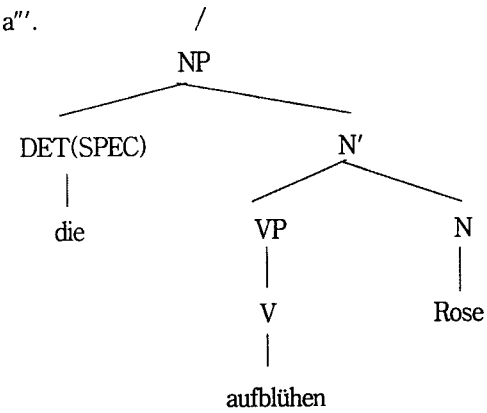
통사적인 제약 (11)에 의하면 명사앞에는 [α AGR, β TEMP, ∨ ASP]와 같은 자질묶음을 갖는 어떠한 부가어절이 올 수 없다. 따라서 (2a′)의 기저구조는 (2a″) 구조가 나타내는 바와 같은 0-범주를 포함하는 구조가 된다.

기저구조 (2a″)에서 I 범주에 자질묶음 [α AGR, β TEMP, ∨ ASP]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IP의 SPEC자리가 공범주가 된다. 그리고 이들을 지배하는 IP범주와 다시금 이 IP범주를 지배하는 C범주, CP의 SPEC, CP범주가 공범주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게 되고, 결국 (2a′)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눈에 보이는 단순한 (a‴)의 구조로 바뀌게 된다.

(2)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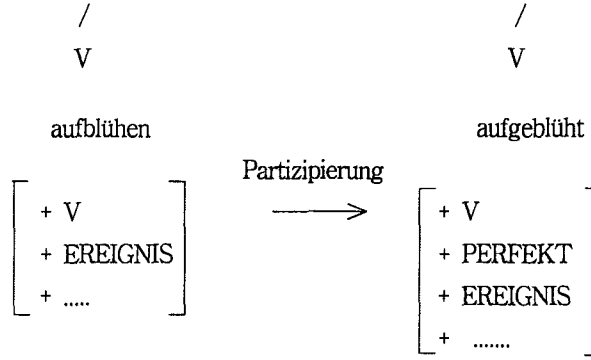

NP
DET(SPEC)
N′
die
CP
N
SPEC
C′
Rose
[0]
C
IP
[0]
SPEC
I′
[0]
VP
I
V
[0]
aufblühen

(2) a‴.


NP
DET(SPEC)
N′
die
VP
N
V
Rose
aufblühen

이 구조에서 유도된 명사구 die *aufblühen Rose는 명사앞에 동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어휘규칙을 통해 동사범주에 속하는 aufblühen이 형용사 범주에 속하는 aufgeblüht로 바뀔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명사구 die aufgeblühte Rose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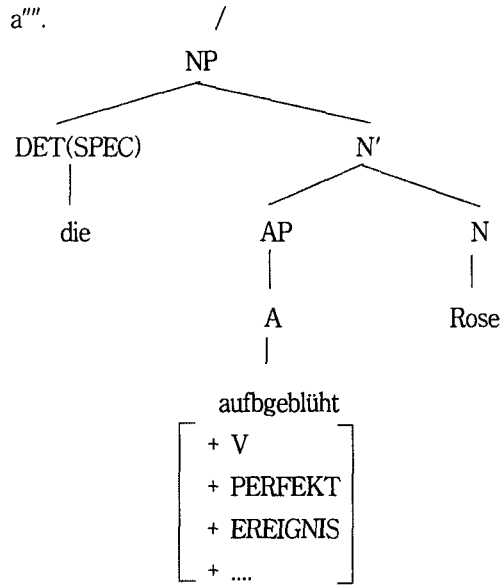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Ereignisverb) aufblühen은 형태소 조작(Partizipierung)을 통해 사건동사에 속하는 과거분사 형태 aufgeblüht가 된다. 이러한 형태소 조작은, 사건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소가 갖는 자질묶음 속에 사태변화의 특정한 결과를 갖게 하는 동작태 자질 [+PERFEKT]를 추가로 얻게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휘부에 오직 이러한 [+PERFEKT, +EREIGNIS]자질을 가진, 사건동사의 과거분사 형태 어휘만이 형용사범주의 어휘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다음과 같은 범주변경 어휘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13) 범주변경 어휘규칙 ("Category Changing Lexical Rule")

이러한 범주변경 어휘규칙이 적용된, 형용사화된 과거분사 aufgeblüht는 (2a"")에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die aufgeblühte Rose의 표층구조를 얻게 한다.

(2) a"".



이론적으로 표층구조 (2a"")는 기저구조(D-구조)인 (2a')으로의 복원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표준이론에서 처럼 관계대명사와 정동사를 지배하는 범주를 삭제하는 일이 없었고, 둘째 단순히 어휘규칙에 의해 V범주가 가지고 있는 자질에 따라 V를 A범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으로 A범주를 V범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기저구조인 (2a')을 재구성하는 일이 용이하게 된다. 결국 명사 N과 명사가 지배하는 부가어절 CP의 관계는 명사 좌측에 부가어절이 주어질 경우 관계문의 표층구조가 유도되고, 명사 우측에서는 부가어절 CP가 주어질 경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의 표층구조가 유도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이 장 서두에 제시한 (4a) der *geschwommene Junge와 (5a) das *gelachte Mädchen등이 비문법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13)의 범주변경 규칙이 (14)에서 보듯 동사 schwimmen, lachen의 과거분사가 형용사 범주로 바뀌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14)

/	/
V	A

geschwommen/gelacht ⟶/⟶ gechwommen/gelacht

+ V	+ V
+ PERFEKT	+ PERFEKT
- EREIGNIS	+ EREIGNIS
+	+ .....

즉 과거분사 형태가 [-EREIGNIS]자질을 갖는, 상태동사나 동작동사로 부터 어휘규칙에 의한 형용사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rbeiten, tanzen, lachen, fahren, laufen, kommen, schwimmen등과 같은 동작동사나, blühen, bluten, glühen, liegen, schlafen, schweigen, leben, kränkeln등과 같은 상태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형용사화가 불가능한 반면 ankommen, einschlafen, erblühen, erkranken verbluten, verfaulen, verglühen, versterben 등과 같은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형용사화가 가능한 것이다.

자동사 중에서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유도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 예문들을 보자.

(15) a. Der Mann geht zum Bahnhof.
b. Der Mann ist zum Bahnhof gegangen.
c. der zum Bahnhof *gegangene Mann

(16) a. Der Student geht in den Saal hinein.
b. Der Student ist in den Saal hineingegangen.
c. der in den Saal hineingegangene Student

(17) a. Der Junge läuft zum Spielplatz.
b. Der Junge ist zum Spielplatz gelaufen.

c. der zum Spielplatz *gelaufene Junge

(18) a. Der Mann läuft aus dem Büro.

b. Der Mann ist aus dem Büro gelaufen.

c. der aus dem Büro gelaufene Mann (Helbig 1984: 282)

(19) a. Der Junge schwimmt über den Fluss.

b. Der Junge ist über den Fluss geschwommen.

c.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e Ju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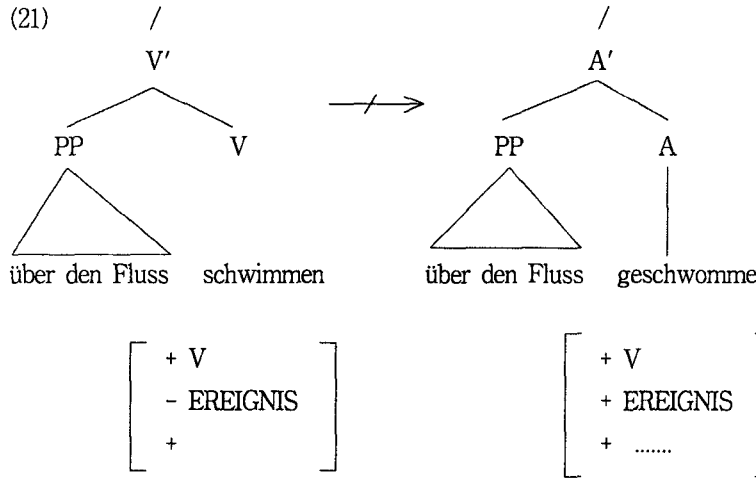
(20) a. Der Junge schwimmt an das andere Ufer.

b. Der Junge ist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

c. der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e Junge

예문 (15)-(20)을 보면 동일한 동사라 하더라도 어떤 전치사구를 택하는가에 따라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유도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동사구 aus dem Büro laufen으로부터 aus dem Büro gelaufen과 같은 문법적인, 부가어적 형용사구가 유도될 수 있지만 zum Spielplatz laufen으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zum Spielplatz gelaufen을 유도하면 비문법적이 되는 이유가 아직까지 독어학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동일한 현상을 schwimmen에서도 보게 되는데 über den Fluss schwimmen으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über den Fluss geschwommen을 유도하면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an das andere Ufer schwimmen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을 유도하면 문법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가 특정한 전치사와 결합할 때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작태 고유자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게 한다. schwimmen을 예로 들어 이러한 현상을 기술하여 보자.

(21)



schwimmen이 완료상의 과거 분사 geschwommen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 동사가 전치사구 보족어 über den Fluss를 취하는 한 부가어적인 형용사구가 유도되지 않는다. 즉 이 완료상은 단순히 über den Fluss schwimmen 하는 동작이 끝이 났음을 의미할 뿐 이 동작이 끝난 이후에 어떠한 사태변화의 결과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동작이 끝나는 경우가 (15a) zum Bahnhof gehen, (17a) zum Spielplatz laufen으로부터 각각 유도된 과거 분사구문 zum Bahnhof gegangen, zum Spielplatz gelaufen의 완료상이다. 그러나 schwimmen이 전치사구 보족어 an das andere Ufer를 취할 경우 다음과 같은 동작태 고유자질에 변화가 생긴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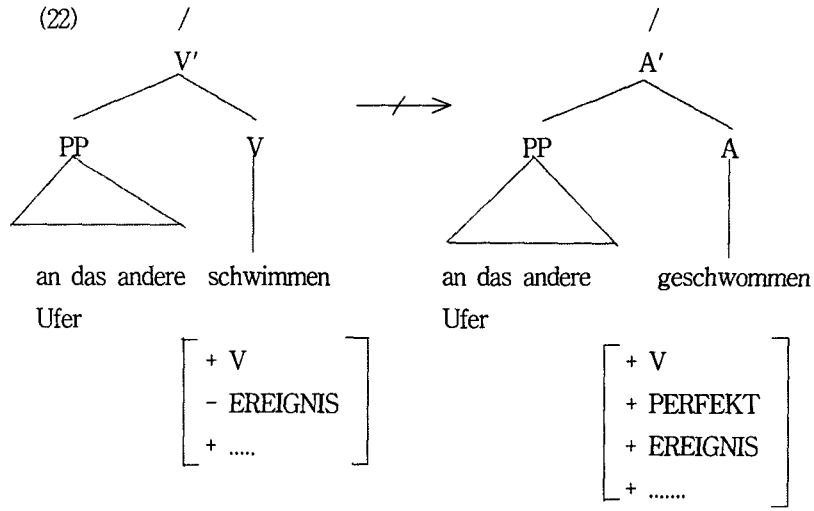
3) Zifonun et al.(1997: F4 Grammatik der Ereignisperspektivierung)은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의 유도를 변형성 자질[±transformativ]에 근거하고 있다. 즉 [+transformativ]자질을 가진 과거분사는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그녀의 이론에 따를 것 같으면 문법적이다.

a. Der Mann tanzte in den Saal.

b. der in den Saal *getanzte Mann

이러한 변형성에 근거한 단순한 사태변화의 기술은 예문 (15)-(20)에 주어진 술어들의 과거분사 zum Bahnhof gegangen과 in den Saal hineingegangen의 대립, zum Spielplatz gelaufen과 aus dem Büro gelaufen의 대립, über den Fluss

(22)



예문 (20b)에서 그 소년이 강 건너편 언덕으로 수영해 가는 일을 끝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소년이 강 건너편 언덕에 다아 있는 것을 가정하게 된다. 따라서 (22)에서는 [+V, -EREIGNIS]자질을 갖는 schwimmen이 전치사구 보족어 an das andere Ufer와 결합함으로써 형용사 범주로 바뀔 수 있는 [+V, +PERFEKT, +EREIGNIS]자질을 얻게 된다.

---

geschwommen과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의 대립을 없애고 이들로부터 모두 문법적인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를 유도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의 문법성은 모국어화자들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모국어 화자들은 der zum Bahnhof *gegangene Mann을 문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반면 der in den Saal hineingegangene Student을 문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der zum Spielplatz *gelaufene Junge가 비문법적이고 der aus dem Büro gelaufene Mann이 문법적이며,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e Junge가 비문법적인 반면 der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e Junge가 문법적인 것으로 모국어화자들의 의견이 일치된다. 따라서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의 유도가 단순히 Zifonun et al.(1997)의 [+transformativ], [-transformativ]자질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Zifonun et al.(1997)의 Transformativität는 이 논문에서 자질묶음 [+PERFEKT, +EREIGNIS]에 대등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자질묶음은 시간의미론상으로 어떠한 의미해석을 받는가에 따라 그 문법성이 결정된다.

3. 부가어적 형용사의 의미기술

3.1. 의미역 기준

부가어적인 형용사구의 통사적인 유도에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가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범주변경이 가능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앞장에서 제시한 과거분사의 기저동사를 볼때,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하면 비문법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다시한번 몇가지 비문법적인 부가어적 형용사의 유도를 보자.

(23) a. der *geschwommene Junge [AGENS]
b. der Junge, der geschwommen hat,
(24) a. das *gelachte Mädchen [AGENS]
b. das Mädchen, das gelacht hat,
(25) a. der den ganzen Tag *gearbeitete Mann [AGENS]
b. der Mann, der den ganzen Tag gearbeitet hat,

동작동사 arbeiten, tanzen, lachen, fahren, laufen, kommen, schwimmen, schweigen, spielen 등은 행위자 AGENS의 의미역을 주어로 갖고 이들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할 경우 모두 비문법적이었다. 또한 blühen, bluten, glühen, hängen, klingen, kränkeln liegen, schlafen, stehen, wachen, wohnen,등과 같은 상태 (Zustand)나 과정 (Prozeß)을 나타내는 자동사들은 의미역이 [THEME]인 주어를 취하지만 이들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한 다음의 명사구들은 모두 비문법적이었다.[4)]

4) 이 논문에서 전형적인 THEME의미역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Dowty(1991: 572)의 전형적인 Patient 의미역에 따른 것이다.
P1: undergoes change of state
P2: incremental theme
P3: causally affected by another participant
P4: stationary relative to movement of another participant

(26) a. die *[geklungene] Glocke [THEME]
b die Glocke, die geklungen hat,
(27) a. der *[geglühte] Draht [THEME]
b. der Draht, der geglüht hat,
(28) a. das *[den ganzen Tag gespielte] Kind [THEME]
b. das Kind, das den ganzen Tag gespielt hat,

그러나 abfahren, ankommen, einschlafen, erblühen, erklingen, erkranken, verbluten, verfaulen, verglühen, versterben 등과 같은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2장에서 고찰한 바 있다. 다시금 이들의 몇가지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의 의미역을 보자.

(29) a. die [verklungene] Glocke [THEME]
b. die Glocke, die verklungen ist,
(30) a. der [verglühte] Draht [THEME]
b. der Draht, der verglüht ist,
(31) a. das [eben eingeschlafene] Kind [THEME]
b. das Kind, das eben eingeschlafen ist,

이들 과거분사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모두 [THEME]인 의미역을 갖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상의 상태, 동작, 사건동사들을 근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를 유도하기 위한 의미역 규약을 설정할 수 있다.

(32) Konvention I:
A: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사건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 유도된다.
B: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는 [THEME] 의미역을 가져야만 한다.

(P5: does not exist independently of the event, or not at all)

Konvention I의 조건 A, B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직 [THEME]의미역을 취하는 사건동사의 과거분사로부터만이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유도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사건동사와 사건동사가 논항으로 취하는 명사의 의미역관계에 관한 최근의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규약을 제시한다.[5)]

(33) Konvention II

1. THEME의미역을 가진 논항은 사건동사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겪는다.
2. THEME의미역을 가진 논항은 사태변화를 겪은 후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속성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건동사가 타동사의 경우 인과적으로 사태변화를 야기시키는 AGENS 의미역을 가진 논항을 전제로 한다.

이상의 Konvention I와 Konvention II는 지금까지 취급한 동사들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들이 적용되는 단계에 있어서 과거분사에 내재한 완료상으로 인해 행위자 AGENS 의미역을 갖는 논항이 다음과 같이 THEME의미역을 갖는 논항으로 의미역이 뒤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5) Shin(2001: 307, 309)에서 사건동사에 대한 존재론적 정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i) "...The base verbs [...] should also denote events,"
   ii) the event structure of events includes a source state, a target state, and a transition with a terminating point between transition and target state.
   즉 사건동사의 경우 초기상태와 목표상태를 구분하는 분명한 시간적인 경계설정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건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의미역이 THEME일 경우 이 논항에 대한 사건참여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i) "The theme argument must undergo a change of properties,"
   ii) "it must acquire an identical and constant target-state property specified by [...] the past participle of its events."
   즉 사건변화에 참여하는 논항이 THEME인 의미역을 가질 경우 이 논항은 사태의 변화를 겪어야만 하고 또한 결과상태를 자신의 속성으로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동사와 사건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THEME 의미역에 대한 존재론적 정의는 이 논문에서 동사들을 분류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다.

(34) a. Der Junge[AGENS] läuft zum Spielplatz.
b. Der Junge[AGENS] ist zum Spielplatz gelaufen.
c. der zum Spielplatz *gelaufene Junge[AGENS]
(35) a. Der Mann[AGENS] läuft aus dem Büro.
b. Der Mann[AGENS/THEME] ist aus dem Büro gelaufen.
c. der aus dem Büro gelaufene Mann[THEME]
(36) a. Der Junge[AGENS] schwimmt über den Fluss.
b. Der Junge[AGENS] ist über den Fluss geschwommen.
c.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e Junge[AGENS]
(37) a. Der Junge[AGENS] schwimmt an das andere Ufer.
b. Der Junge[AGENS/THEME] ist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
c. der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e Junge [THEME]

(35a)에서 술어 <aus dem Büro laufen>이 논항으로 취하는 [AGENS]인 der Mann은 laufen하는 행위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35b)에서 der Mann은 Büro안에 있다가 Büro 밖에 있게 되는 분명한 위치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즉 der Mann이 aus dem Büro laufen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한 [AGENS]의 의미역을 갖지만 그러나 그 행위 수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Büro 안에 있지 않게 될 때 der Mann 은 이러한 위치적인 변화를 자신의 속성으로 갖게 된다. 따라서 이때의 der Mann은 사태의 변화를 겪는 [THEME]의 의미역을 갖게 된다. 이 경우 aus dem Büro gelaufen으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문법적이다. 다음으로 (36a)에서 [AGENS] 의미역을 갖는 der Junge는 술어 <über den Fluss schwimmen>이 지칭하는 행위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행위수행을 완료하게 되는 (36b)의 사태로부터 der Junge의 위치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추리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über den Fluss schwimmen>이 다만 행위가 수행되는 과정만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술어의 과거분사로부터 문법적인, 부가어적 형용사를 유도할 수 없다. (37a)의 술어 <an das andere Ufer schwimmen>의 논항인 der Junge는 [AGENS]인 의미역을 갖고 schwimmen하는 행위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완료된 (37b)에서, der Junge는 an dem anderen Ufer에 있게 되는 분명한

위치적인 변화를 겪고, 그리고 이러한 위치적인 변화를 자신의 속성으로 갖게 된다. 이때 der Junge는 사태의 변화를 겪는 [THEME]의 의미역을 갖게 된다. 이 경우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으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는 문법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절에서 시간의미론에 의한 해석을 통해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2. 부가어적인 형용사의 시간의미론적 기술

3.1.에서 우리는 의미역 기준에 의해 THEME의미역을 취하고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가 유도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시간축 상에서의 해석에 따라 그 문법성이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26), (29)를 다시한번 보자.

(26) a. die *[geklungene] Glocke
b. die Glocke, die geklungen hat,
(29) a. die [verklungene] Glocke
b. die Glocke, die verklungen ist,

부가어적인 형용사 (26a)가 비문법적인 것은 동의관계에 있는 관계문 (26b)의 과거분사 geklungen이 갖는 자질 [+PERFEKT, +EREIGNIS]에 다음과 같이 시간 의미론적인 해석을 가함으로써 알 수 있다.

(26) b'.

TSit ⟶ TT

.....{//////////////////////}.....
t1 ... ti ... tn tn+1
K ... K ... K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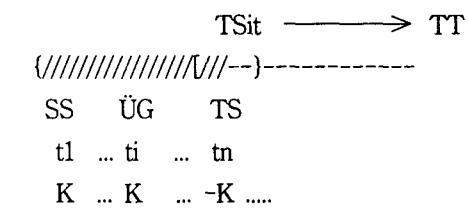
wobei es gilt: $1 \leq i \leq n$ und K = klingt(x); x = die Glocke

(26b')에 제시된 시간구간 t1-tn에서 어휘내용 <die Glocke kling->이 지칭하는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Klein (1994, 1999)에 따라 { }로 표시하여 상황시간(TSit = "Time of Situation")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완료상을 통해 이러한 시간구간에서의 사태가 종료되고 난 후 시간에 대해 언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언급이 가능한 시간을 주제시간 ("Topic Time" = TT)라고 한다.[6] 상황시간 TSit의 하위 시간구간에서 어휘내용 <die Glocke kling->이 지칭하는 개별적인 사태들은 동일하다(시간축상에서는 모두 K로 표시하고 이는 -EREIGNIS자질에 대한 해석이다). (26b)의 [+PERFEKT]자질로 나타내는 완료시제는 정동사 hat가 지칭하는 현재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볼때 이러한 사태가 특정한 시점 tn이후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THEME]의미역인 die Glocke가 ti의 시간구간(1≤i≤n)에서 어떠한 질적 혹은 양적 변화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이 시간구간내에서는 모두 K라는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Konvention II에 제시한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고, 따라서 과거분사인 geklungen으로부터 (26a)의 부가어적인 형용사유도에 대한 올바른 의미해석을 얻을 수가 없다.

다음은 부가어적인 형용사 (29a)와 동의관계에 있는 관계문 (29b)의 시간의미론적인 해석을 가지고 문법성을 검토해 보자.

(29) b. die Glocke, die verklungen ist,

b'.



wobei es gilt: 1≤i≤n und K = klingt(x); x = die Glocke

6) 주제시간과 상황시간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Klein(1994: Chapter II, IV, V)를 참조.

(29b')에 제시된 시간구간 t1-tn-1는 초기상태 SS(=Source State)에서 <die Glocke kling->이 지칭하는 사태가 지속되다가 점점 klingen하는 과정이 축소되는 단계 ÜG(=ÜBERGANG)을 거쳐 목표상태 TS(=Target State)의 시점 tn에 이르러 드디어 더 이상 die Glocke가 울리게 되지 않는 (verklungen)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분사 verklungen의 자질 [+EREIGNIS]에 근거한다. (29b)의 정동사 ist가 지칭하는 현재완료 시제는 현재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볼때 <die Glocke kling- nicht>가 지칭하는 사태 결과가 특정한 시점 tn이후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결과는 과거분사 verklungen의 [+PERFEKT] 자질에 근거한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지식에 비추어 이러한 결과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종이 다시 울리게 되는 경우를 알고 있다.) 또한 THEME 의미역인 die Glocke는 시간구간 $1 \leq i \leq n$ 에서 질적인 속성의 변화(울리다가 점점 울리는 소리가 사라져가는 과정)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Konvention II에 제시한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켜 (39a)의 부가어적인 형용사에 대한 올바른 시간의미론적 해석을 얻을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자동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할 때 문법적인 경우와 비문법적인 경우의 예들을 의미역을 가지고 고찰한 바 있다. 다음은 이들의 기저구조에 시간적인 의미해석을 가해봄으로써 문법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얻도록 시도해 보고자 한다. 다시금 (36), (37)의 예들을 보자.

(36) a. Der Junge schwimmt über den Fluss.
b. Der Junge,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 ist,
c.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e Junge

(37) a. Der Junge schwimmt an das andere Ufer.
b. Der Junge, der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 ist.
c. der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e Junge

(36c)의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über den Fluss geschwommen이 비문법적이고 (37c)의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이 문법적인 이유를 이들과 동의관계에 있는 관계문에서 논항의 의미역과 과거분사의

어휘자질 [+PERFEKT, +EREIGNIKS] 에 근거하여 판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통사상의 제약이 시간의미론적인 의미해석과 부합하는지를 다음의 시간축상에서 검토하여보자.

(36) b'.

TSit ——————> TT

{//////////////////}----------

t1 ... ti ... tn

S ... S ... -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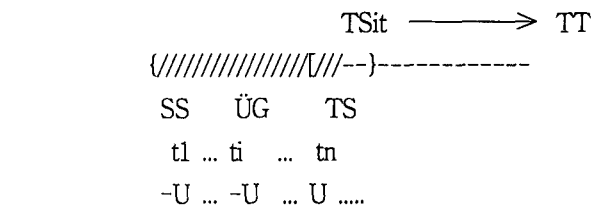
wobei es gilt: 1≤i≤n und S = über den Fluss schwimmen(x);

x = der Junge

(36b')에 제시된 시간구간 t1-tn에서 <der Junge schwimm- über den Fluss>이 지칭하는 사태가 지속되다가, tn 시점에서 종료되는 상황을 상황시간 {////}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분사 geschwommen의 [-EREIGNIS] 자질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tn 시점 이후시간에서는 어느 때라도 이러한 사태완료에 대한 주장이 타당하기 때문에 주제시간 TT은 상황시간 TSit의 이후시간(TSit<TT)이 된다. 이는 geschwommen의 [+PERFEKT]자질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AGENS]의미역을 갖는 주어 der Junge는 시간구간(1≤i≤n)에서 어떠한 질적 혹은 양적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구간 내에서는 모두 <über den Fluss schwimm->이라는 동일한 속성을 갖는다. 따라서 Konvention II 에 제시한 의미역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과거분사구인 über den Fluss geschwommen으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를 유도하면 올바른 의미해석을 얻을 수 없다.

(37b)에서 술어 <an das andere Ufer schwimm->의 과거분사 geschwommen은 [+EREIGNIS] 자질을 갖기 때문에 시간축상에서 다음과 같이 초기상태와 목표상태의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사태변화를 지칭한다.

(37) b'.



wobei es gilt: $1 \leq i \leq n$ und U = an dem anderen Ufer sein(x);
x = der Junge

(37b")의 시간구간 t1-tn 을 보면 초기상태 SS(=Source State) t1에서 der Junge가 강을 건너가기 시작하고 점차로 강을 건너가는 과정 ÜG(=ÜBERGANG)을 거쳐 목표상태 TS(=Target State)의 시점 tn에서 강 건너 기슭에 있게 되는 사태변화를 나타내 주고 있다. (37b)의 기저구조에서 정동사 ist가 지칭하는 현재완료 시제는 현재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볼때 <der Junge schwimm- an das andere Ufer>란 동작이 특정한 시점 tn에서 끝이 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과거분사 geschwommen의 [+PERFEKT]자질에 근거한다. 이때 AGENS의미역을 가졌던 der Junge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고 또한 tn 시점 이후 der Junge의 위치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THEME의미역을 갖는다. 따라서 Konvention II의 의미역 조건과 부합하여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an das andere Ufer geschwommen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얻게 된다.

5. 결론

과거분사로부터 유도된 독일어의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사자질 [+PERFEKT, +EREIGNIS]자질에 의해 시간축 상에서 적절한 시간의 미론적인 해석을 얻음으로써 그 문법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동사의 경우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들이 부가어적인 형용사구로 유도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장소의 이동을 나타내는 kommen, gehen, laufen, schwimmen. treten등과 같은 자동사들이 보족어로 취하는 전치

사구의 경우 문법성에 대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이들과 전치사의 결합을 [+EREIGNIS]자질을 갖게 되는가 아니면 [-EREIGNIS]자질을 갖게되는 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과거분사가 완료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분사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구 가운데 오직 [+PERFEKT, +EREIGNIS]을 가진 것만이, 이러한 자질묶음을 근거로 시간축상에서 적절한 시간의미론적인 해석을 받게될 수 있었으며, 문법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타동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각이나 상태 또는 동작의 동작태를 갖는 동사들의 과거분사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가 유도될 경우 die *gehörte Musik, das *gesehene Bild, der *beobachtete Stern와 같은 예들이 보여주는 바 처럼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의 제2 분사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der geschlagene Hund, die geöffnete Tür, das gebaute Haus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부가어적인 형용사들은 문법적이다. 그리고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보족어를 취하는 사건동사의 제2 분사로부터 유도된, das auf den Stuhl gesetzte Kind, die an das Fenster gestellte Vase. der auf den Boden gefällte Baum. das an die Wand gehängte Bild. das auf den Tisch gelegte Buch등에서 볼 수 있는 부가어적인 형용사들도 역시 분법적이다. 우리는 이들의 문법성도 자동사의 경우와 같이 X′- 통사론에 의해 관계문의 기저구조로부터 유도할 수 있으며 의미역과 시간의미론적인 해석에 따라 그 문법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ie *gehörte Musik, das *gesehene Bild, der *beobachtete Stern의 부가어적인 형용사들을 확장할 경우 der die ganze Nacht von Hans beobachtete Stern, die während der Schifffahrt öfters gehörte Musik, das während der Ausstellung oft gesehene Bild와 같이 문법적인 예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외로 볼 것인가 혹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통사의미론적인 기준에 따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에 열어 놓기로 한다.

참고문헌

구명철 (2002): 결과구문으로서 sein + 과거분사. 독일문학 제 81집 43권.

류병래 (2002): 현대독일어 제2형 분사의 형용사 전환에 대한 제약, 언어와 정보 6.1. 한국 언어정보학회

신수송 (1988): 현대독어학. 교육과학사. 서울

신수송 (1997): 독일어 사건명사에 관한 의미론적 기술, 어학연구 제 33권 제 3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신수송((2000): 독일어 동사의 어휘의미기술을 위한 새로운 방안, 독일문학 제 76집. 41권 4호. 한국독어독문학회

Comrie, B. (1976): *Aspects: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Verbal Aspect and Related Problems.* Cambridge.

Comrie, B. (1985): Tense: Cambridge.

Dowty, 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67.

Duden (1984):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Mannheim, Dudenverlag. 4. Aufl..

Ehrich, V. U. (1977): *Zur Syntax und Semantik von Substantivierungen im Deutschen.* Scriptor. Düsseldorf.

Eisenberg, P.(1986):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Stuttgart: Metzler.

Flämig, W./K. Heidelph/W. Motch (1981):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Berlin

Grebe, P. (1966): *Der große Duden: Grammatik.* Mannheim

Helbig, G./J. Busch (1986): *Deutsche Grammatik.* Berlin.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 & New York: Routledge.

Klein, W. (1999): Wie sich das deutsche Perefekt zusammensetzt,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113.

Paul, H. (1920): Deutsche Grammatik. Halle a. S.: Verlag von Max Niemeyer.

Pustejovsky, J. (1991a): The Syntax of Event Structure, Cognition 41.

Soo-Song Shin (2000): Some derivational Constraints for German -ung-nominals, *Language Research* Vol. 36. No. 2.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Song Shin (2001): On the event structure of -ung-nominals in German, *Linguistics* 39-2.Mouton de Gruyter. Berlin/New York.

Smith, C.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Storch, G. (1978): *Semantische Untersuchungen zu den inchoativen Verben im Deutschen.* Braunschweig: Vieweg.

Vendler, Z. (1957): Verbs and Time, *The Philosophical Review* LXVI.

Vendler, Z. (1967): Facts and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Zifonun, G./L. Hoffmann/B. Strecker (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Vol 3. Walter de Gruyter. Berlin.

Zusammenfassung

Untersuchungen zur Grammatikalität der attributiven Adjektive aus dem Partizip II

Lee, Hae-Jong(Goethe Institut)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die Grammatikalität der attributiven Adjektive zu beurteilen, die aus ihren Basisverben abgeleitet sind. In den bisherigen Untersuchungen der deutschen Syntax sind die Ausdrücke wie *das verbrannte Papier, die aufgeblühte Rose, die verklungene Glocke* als grammatisch angenommen worden. All diejenigen Adjektive sind aus den Ereignissverben abgeleitet.

Fraglich ist nun, ob man die Attribuierung der Adjektive aus den Fortbewegungsverben *kommen, gehen, laufen* auch für akzeptabel halten soll. Einige Beispiele wie der *in Heidelberg angekommene Zug, der aus dem Büro gelaufene Mann zeigen,* dass die Ableitung der attribuierten Adjektive auch für Fortbewegungsverben möglich sei. Auf der anderen Seite kann man diejenigen

Beispiele schwer akzeptieren, wie *der zum Bahnhof gegangene Mann, der über den Fluss geschwommene Junge,* die aus *kommen, gehen, laufen* usw. abgeleitet sind.

Die entscheidenden Kriterien der Grammatikalität liegen darin, dass die Ableitung der attribuierten Adjektive hauptsächlich folgende Bedingungen erfüllen soll:

1. Das an dem Ereignis beteiligte Argument muss eine Theta-Rolle [THEME] haben.
2. Das Argument soll irgendwie qualitativ oder quantitativ verändert werden.
3. Das Ereignis muss eine Veränderung zeigen, die Anfangszustand, Endzustand und auch eine Übergangszeit dazwischen beinhaltet.

Mit diesen Kriterien habe ich die Grammatikalität der wichtigen Beispiele der Attribuierung entscheiden können, die in der deutschen Linguistik theoretisch viel diskutiert worden sind.

[검색어] 부가어, 시간의미론, 주제시간
Attribut, Zeitsemantik, Topic Time

이 해정
150-76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APT. 12동 63호
iamlhj6685@hanmail.net